

TALK²

[특투]

CSG

CSG Magazine

Vol.11 VJ 생산 30주년 특집호

2025년 8월호

TALK



EACH OTHER.

30TH ANNIVERS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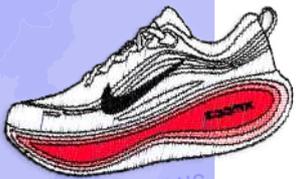
EXCHANGE



P-6000



AIR JORDAN 1



VOMERO PLUS

IDEAS.

STAY CONNECTED.

VJ 생산 30주년 특집호

Contents

The Spiritual Leader,

세상을 읽다

찰나에 담긴 회장님의 깊은 통찰 6

셋별, 깨어있는 자의 몫

The AceMaker

창신인, 에이스메이커들의 이야기

특부 [TALK² + Interview] 9

김시정 GM

One in a Million 16

취향이 깊이를 만나는 순간

CEO 두줄 노트 20

90g으로 입증된 기술력

Manufacturing

창신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MX Designer 23

차원이 다른 성장을 만들다

Special Page 32

우리 모두가 주인공

Trend Catcher 44

News Clipping 77호

The Spiritual Leader, 세상을 읽다

찰나에 담긴 회장님의 깊은 통찰



The Spiritual Leader, 세상을 읽다

찰나, 한 장에 담다



해외법을 찾을 때마다 아침 일찍 공장동을
 걸으며 현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지난 6월 VJ, 어느 때처럼 새벽을 깨우며
 발걸음을 옮기던 중 동쪽 하늘에 유난히
 또렷하게 빛나는 새벽을 마주했다.
 해가 뜨기 전 어두운 하늘에서 더욱 밝게 빛나는
 새벽처럼, VJ는 지난 30년 동안 치열한 시간 속에서
 스스로의 찬란한 빛을 만들었다.

가장 환한 빛은
 치열한 새벽을 견디는 자에게 허락된다.

30년 전 신발 공장의 불모지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았던 건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해 나아간 두려움 없는 용기였다.

앞으로의 30년 또한
 새벽처럼 깨어있는 자의 몫이 될 것이다.

The AceMaker

창신인, 에이스메이커들의 이야기

The AceMaker

The AceMaker | 특부

특부 [TALK² + Interview]

창신 에이스들의 성장 스토리와 도전을 집중 조명합니다

기술과 신뢰로

모두가 주인공인 VJ를 꿈꾸다



(왼쪽부터) VJ 전용선 그룹장, 최연창 담당, 박진희 담당, 이영수 EMD, 윤대응님, 김시정 GM, 김성권 MGL, 김영상 담당, 선재홍 담당, 김동욱 팀장, 최재영님, 광계만님

특투 8월호는 창신 베트남 생산 30주년을 맞아 준비한 특별한 기록이다. 30년 동안 VJ가 걸어온 성장과 변화의 여정을 직접 담기 위해 VJ를 찾았다. 4만 3천여 명 직원들의 활기로 가득한 창신 베트남 해외법인, VJ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진화하며 새로운 내일을 써 내려가고 있다.

VJ

대체 불가능한
 독보적 기술력으로
 새로운 10년을 이끈다



신뢰와 임파워먼트로 VJ의 미래를 만들어가다

김시정 GM

VJ는 단순한 생산성과 효율을 넘어 디지털 시스템 기반의 운영 혁신, 그리고 사람이 성장하는 조직. 이 두 축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끊임없는 개선과 실행력으로 생산성과 품질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VJ는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성과 책임이 자연스럽게 스며든 조직으로 진화 중이다. '내가 주인공'이라 느낄 수 있는 일터, 그 변화는 지금 VJ에서 현재 진행 중이다.

20년 넘는 컨설팅 경험에서 쌓아온 전략적 통찰력 위에 창신 베트남의 미래 경쟁력을 설계하는 김시정 GM의 이야기를 'VJ 생산 30주년 특집호' 특부에 담았다. 기술로 혁신하고 신뢰로 이끄는 그만의 리더십으로 새로운 10년을 향해 나아가는 VJ의 오늘과 내일을 들여다본다.

Q 창신의 첫인상

2012년, 컨설턴트로 처음 창신을 만났다. 당시만 해도 부산의 제조업, 중견기업이 외부 컨설팅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보수적일 거라는 예상은 첫 방문에서 완전히 깨졌다. 실제 마주한 창신은 압도적인 규모와 활기찬 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외부의 시선과 조연에 열려 있는 '개방적인 분위기'가 인상 깊었다. 회장님부터 실무자까지 "도움이 된다면 뭐든 받아들이자"라는 태도는 컨설턴트로서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개방적인 분위기와
 인간 존중의 가치가 인상 깊어”

Q 수많은 기업 중 왜 창신이었나

경험했던 어떤 회사보다 사업적으로 명확한 비전이 있고,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특히 컨설팅 경험을 통해 이미 창신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개방적인 문화와 외부 인력에 대한 포용성 또한 창신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굳히게 만들었다.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합류한 임직원이 많았기에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라 차별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었다.

여기에 더해, 창신이 실천해 온 '인간 존중' 가치는 내 결심에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회장님의 경영 철학 아래 임직원들이 진정으로 좋은 역할을 잘 해내려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 그런 선한 회사의 일원이 되어 나 역시 함께 의미 있는 성장과 기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Q 컨설팅에서 생산현장, 쉽지 않은 전환이었을 것 같다. GM으로 마주한 가장 큰 도전은?

가장 중요한 건, 직원들과 '신뢰'를 쌓는 것이었다. 특히 법인 현장의 임금 구조 개선이라는 민감한 주제부터 다뤄야 했기에, 진정성 있는 태도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매일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직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끊임없이 돌아봤다. 설령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지는 이야기라도 일단은 끝까지 듣고,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태도를 잃지 않으려 했다.

개인적으로 진정한 리더십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르고 싶어지는 힘'에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아무리 뛰어난 결정이라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조직은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 '저 사람의 말이라면 믿을 만하다'를 넘어 '설령 틀리더라도 함께하고 싶다'는 신뢰를 쌓기 위해 오늘도 경청하고 배우며 더 나아가지려 애쓴다.



컨설턴트 시절,
 김시정 GM

Q 이제 신뢰가 VJ 조직에 스며들었나

VJ와 같은 거대한 조직을 안정적이면서도 유연하게 이끌기 위해 중요하게 여긴 원칙은 '신뢰는 권한을 주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점이다. 하루에도 수십, 많게는 100건이 넘는 결재 서류가 올라오지만, 대부분은 총괄들의 판단을 믿고 서명한다. 중요한 건,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항상 이렇게 말한다. "내가 없다는 가정 하에 책임지고 결정해라.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내가 진다. 물론, 혼자 가진 않을 것"이라고. 농담처럼 들릴지 몰라도, 이는 단순한 위임이 아니다. 신뢰와 책임을 함께 나누는 실행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닌 조직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이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안에서 신뢰와 책임이 자연스럽게 공유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총괄들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고, 알지 못하는 영역은 인정하며 그들의 선택을 믿는다.

동시에 내가 줄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기꺼이 건넨다. 이렇게 신뢰가 쌓이고, 책임 공유가 누적되면서 구성원들은 더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조직 역시 민첩하고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된다.

Q 신뢰를 실행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실행이란, 실행할 수 있는 수단과 실행하고 싶은 마음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챙기려 노력한다. 첫째, 실행에 필요한 자원과 환경을 충분히 마련해 주는 것. 둘째, 구성원들이 그 실행의 의미와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직원들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주인의식을 갖도록 유도하고, 불필요한 보고보다는 직접 대화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잘못했는가'보다 '무엇이 문제인가'에 집중해 본질적인 해결에 나선다. 실행은 지시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지는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믿기 때문이다.



Q 과거 경력이 어떤 도움이 되었나

복잡성은 늘 조직을 무겁게 만든다. 과거 나는 복잡성을 단순화하고 효율화하는 전략, 턴어라운드와 디지털 전환에 몰두해왔다. 여러 기업의 현장을 누비며 쌓아온 전략들이, 이제는 GM으로서 생산 현장에서 더욱 입체적이고 실질적인 의미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창신은 LEAN과 C2.0을 함께 추진하면서도, 복잡한 생산 구조를 '단순함'이라는 강력한 경쟁력으로 전환해 내는 탁월한 역량이 강점이다. 최근 나이키의 생산 방식은 점점 더 정교하고 복잡해지는 흐름이다. 이렇수록 복잡성을 꿰뚫는 VJ의 생산 및 관리 역량은 더욱 강력한 창신의 무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Q 복잡성을 단순화하여 효율화 시킨 사례

현장의 불편함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예를 들어, 소화기 점검이나 변전소 설비 점검처럼 누락되기 쉬운 업무들은 RFID 태그나 사진 인증 시스템을 앱으로 구축하여 담당자들이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기록하게 만들었다. 신발에 곰팡이가 피는 문제 발생 시에는 자체적으로 제작한 온도 및 습도 트래킹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이상이 감지되면 담당자에게 알림을 보내 사전 예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예방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현장의 불편을 차근차근 줄여왔다.

특히 의미 있었던 사례는 생산 현장의 비효율을 개선한 일이었다. 기계 고장 시 공무 부서 대응 지연으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반복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LEAN 생산 방식의 핵심 도구인 안돈(Andon)의 디지털화를 추진했다. 안돈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작업자가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각적·청각적 신호 체계로, 결함이 더 크게 확산되기 전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VJ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고장 발생부터 처리 완료까지의 전 과정을 기록하고, 부서별 평균 처리 시간을 공개했다. 그 결과, 처리 시간이 50% 단축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Q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이고, 어떻게 이겨냈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단연 코로나 팬데믹 시기다. VJ는 근무 인원이 많아 밀집도가 높은 공장이어서 감염 확산이 특히 빨랐다. 평소 우호적이지만 했던 베트남 공무원들의 날 선 질타, 의료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직원들이 열악한 수용소로 보내지는 현실, 그리고 결국 40명이 넘는 소중한 생명을 잃는 참담함을 겪었다. 무엇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가장 힘들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역시 직원들 덕분이다. 말투는 다소 딱딱할지라도,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챙기고 진심을 다해주는 모습. 그 마음이, 무력감을 이겨내는 가장 큰 위로이자 힘이 되어주었다.

Q 리더십에 큰 영향을 준 사람들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은 역시 회장님이다. 회장님의 개방적인 사고와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 실패에 대한 관용의 리더십은 항상 깊은 울림을 주었고, 내 리더십의 기준이 되었다. 또 과거 노동부 컨설팅 당시 함께했던 한 고위 공무원이 기억에 남는다. 매우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분이었지만, 이른바 '라인'을 만들지 않는 고독한 리더였다. 그에게 리더십이란 **친분이 아닌 공정함으로 조직을 이끄는 것**이었고, 내게 중요한 교훈으로 남았다. 그리고 포스코의 한 임원의 조언도 마음에 새기고 있다. '재미'와 '보람'을 일의 두 축으로 강조했는데, 재미는 일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이고, 보람은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며 얻는 성취감이라고 했다. 지금도 조직 구성원들이 '재미'와 '보람'을 모두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리더로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역할이다.



2020년 베트남 설맞이(Tet)

땃(Tet)을 맞아 VJ 직원들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는 김시정 GM



2020년 1월, 전 나이키 AJ1 시니어 디렉터 Josh Heard와 함께

With Nike



“창신에 좋은 영향을 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VJ 모두가 주인공인 세상에 없던 좋은 회사를 만들고 싶다”

Q 창신은 어떤 의미이고, 앞으로의 목표는

창신은 내가 커리어를 마무리하고 싶은 조직이다. 거창한 업적보다, **조직에 좋은 영향을 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특히 VJ의 모든 구성원이 “내가 잘해서 회사가 잘 되구나”라는 자부심을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생각을 펼치고 선한 영향력을 나누도록 돕고 싶다. 궁극적으로 창신, 특히 VJ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실현하며 베트남에서 **경영적 성공은 물론 운영 측면에서도 세상에 없던 '좋은 회사'로 기억되는 것**이 목표다.

과거 일본 기업들이 고용 안정성으로, 그 뒤를 미국 기업들이 성과 중심의 혁신으로 이었듯, 창신은 그 이상의 새로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Q 끝으로 VJ 구성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며 최선을 다하는 VJ 구성원들의 모습에서 매번 큰 감동과 힘을 얻는다. 앞으로도 함께 회사의 발전은 물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

백만 명 중 하나

창신인만의 특별한 이야기

ONE *maximize our possibility* IN A MILLION

숨겨진 재능과 독창적인 감각으로 반짝이는 창신인들의
다채로운 삶과 열정을 공유합니다. 각자의 개성과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창신인만의 유일무이한 가치를 조명합니다.

백만 명 중 하나, **내 주변 특별하고 유일무이한 창신인**을 알려주세요!
하단 제보하기 버튼을 누르면 구글 폼으로 연결됩니다.

- "테니스 아마추어 선수권 대회 3연패"
- "힙합부터 왁킹까지, 10년차 스트릿 댄서"
- "다이빙 자격증만 5개, 프리다이버"

제보하기

EP.04

취향이 깊이를 만나는 순간

**: 이야기는,
한 잔의 위스키에서 시작된다**

BU팀 심지훈 팀장

VJ BU팀 심지훈 팀장의 방 한 칸을 채우고 있는 80병의 위스키는 단순한 술이 아니다. 하나하나 다른 맛과 향, 그리고 이야기를 품고 있다. 그에게 똑같은 위스키란 존재하지 않는다. 한 잔을 마셔도 수많은 방식으로 음미하며, 취향의 깊이를 더하고, 감각의 스펙트럼을 넓힌다. 어느새 위스키는 단순한 애호를 넘어 끊임없는 탐구의 영역이 되었고, 깊어진 조예는 대화의 소재가 되어 새로운 인연을 잇는 가교가 되었다.

삶을 채우는 또 하나의 언어, 위스키. 심지훈 팀장이 전하는 다채롭고 섬세한 취향의 이야기를 들어왔다.



인연을 잇고 취향을 담아, 일상 속 천천히 스며들다

칵테일에서 시작해 위스키로 이어진 6년의 기록

Q 위스키에 빠지게 된 계기

2020년, VJ 근무 10년 차. 코로나로 외출이 어려워지자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게 됐다. 그렇게 시작한 게 칵테일이었다. 직접 만들어 마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칵테일의 베이스가 되는 다양한 기주에 관심이 갔다. 진, 럼, 보드카, 그리고 위스키. 그중에서도 **단연 위스키는 특별했다.** 같은 브랜드라도 제품마다, 병마다 향과 풍미가 전혀 달랐고, **한 모금만으로도 뚜렷한 개성을 드러냈다.** 어느 순간 칵테일은 뒷전이 되었고 위스키의 깊이에 매료된 나머지 본격적으로 탐구하게 됐다. 그렇게 한 병 두 병 모으기 시작한 위스키는 **어느새 80병이 넘어 방 한 칸을 가득 채우게 되었다.**

Q 위스키의 매력

‘코끝으로 한 번, 혀끝으로 두 번 마시는 술’이라는 말처럼, **위스키의 본질은 ‘향’에 있다.** 수십 년간 오크통에서 숙성된 위스키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어, 풍성하고도 복합적인 향을 만들어낸다. 완성된 향은 **마시는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원액 그대로 즐기는 니트(Neat), 얼음과 함께 즐기는 온더락(On the Rock), 탄산수와 섞는 하이볼(Highball)까지. 온도와 희석 정도, 잔의 형태 하나만 달라져도 전혀 다른 풍미가 펼쳐진다. 그래서 하나의 위스키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음미하는 건 필수다. 각 제품마다 ‘나만의 황금 레시피’를 찾아가는 과정도 위스키를 즐기는 쓸쓸한 재미다.



Q 최애 위스키 TOP3

1. 맥칼란 18년 구형

싱글몰트 위스키의 정석이자, 위스키계의 교과서. 세리 와인을 담은 오크통에서 오랜 시간 숙성되어 건포도, 대추야자, 다크 초콜릿이 어우러진 진한 단향이 매력이다.

추천 음용법) 니트



2. 스프링뱅크 12CS

원액 그대로 병입된 캐스크 스트렝스(Cask Strength) 위스키. 해마다 블렌딩 비율이 달라져, 매년 다른 풍미를 경험할 수 있다. 진하고 복합적인 맛의 밀도가 특징.

추천 음용법)

첫 잔은 니트, 그다음은 하이볼



3. 야마자키 12

산토리사의 대표작이자, 일본 위스키의 정수. 섬세하고 깨끗한 향에 긴 피니시(잔향)가 인상적이다. 부드러움과 깊이를 동시에 갖춘 균형 잡힌 위스키.

추천 음용법)

니트로 시작해, 온더락으로 마무리



“위스키의 미학, 절제로부터 시작돼”

Q 위스키가 어떤 의미인지

이젠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매개다.** 낯선 자리에서 말문을 트게 하고, 새로운 인연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준다. 단골 바에서 바텐더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새로운 위스키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순간들이 쌓이며, 위스키는 **나만의 배움의 장이자 대화의 언어**가 되었다.

또한 위스키는 **인연을 이어주는 가장 자연스러운 언어**다. 주로 베트남에서 구매하다 보니 현지 수집가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게 되었고,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을 찾을 땐 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손에 넣기도 한다. 어렵게 구한 위스키는 VJ에 방문한 임직원들에게 선물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위스키는 **취향을 나누고 인연을 넓혀주는 도구**가 되었다.

Q 위스키 구매 관련 팁

출장이라면 베트남 호치민의 ‘Ha My Xuan Wine & Spirits’ 매장을 추천하고 싶다. 정품만 취급하며, 웹사이트로 사전 확인이 가능하다. 부산에서는 남포동 광통시장 내 ‘골드 컴퍼니’가 그나마 잘 알려진 곳이다. 다만, 주세율 때문에 국내는 가격이 높은 편이라, 가능하다면 면세 혜택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Q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위스키는 큰 기쁨을 주지만, 동시에 **절제가 전제되어야 진짜 즐거움을 오래 누릴 수 있다.** 나 역시 최소 3일 이상 간격을 두고, 한 번에 두세 잔 이상은 마시지 않으려 한다. 매년 3~4개월은 금주 기간으로 정해 몸과 감각을 재정비하는 것도 나만의 루틴이다. 작은 목표가 있다면, 지금까지 모아온 위스키들을 **천천히, 무리 없이, 건강하게 모두 마셔보는 것.** 내게 위스키란, **오래 곁에 두고 싶은 취향이자,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 존재**이다.

CEO 두줄 노트

사장님의 생각과 통찰을 직원들과 공유하는 칼럼으로, 격월지로 전후 두 달 간의 사장님의 인사이트를 두 문장, 두 문단 형식으로 전합니다



90g으로 입증된 기술력

지난 7월, 프리폰테인 클래식(Prefontaine Classic) 여자 1,500m 경기에서 **페이스키피에곤(Faith Kipyegon)**은 창신이 개발한 **'상그리아(Sangria)'**를 신고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다. 이 신발은 오직 그녀만을 위해 특별 제작된 제품으로, 한 짝의 무게가 고작 90g에 불과하다. 새털처럼 가볍지만, 특수 원사로 제작된 니트 어퍼(Knit Upper)는 피아노 줄보다 8배나 강하고, 지름 1cm 당 최대 20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견고하다. **단 90g의 무게 안에 창신의 첨단 기술과 소재 혁신이 집약되어 있는 셈이다.**

트랙 앤 필드 제품을 마주할 때마다 F1 머신이 떠오른다. F1은 자동차 브랜드의 기술력이 극한까지 발휘되는 무대이자, 그 자체로 브랜드 프리미엄을 상징한다. 창신의 **혁신 기술력** 또한 단순히 경기력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고객사가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된다. 소비자들이 기꺼이 지갑을 여는 이유, **그 시작에는 창신의 최첨단 기술력이 있다.**

Manufuturing

창신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Manufacturing + Future

Manufacturing | MX Designer

MX Designer _ Manufacturing eXperience Designer

MX Designer들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부서 및 팀 소개를 통해 일상 속 성장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고를 향한 열정으로
차원이 다른 성장을 만든다



1995년, 단 6개의 제조 라인과 1,500여 명으로 시작된 VJ는 30년이 지난 지금, 56개 제조 라인과 4만여 명이 함께하는 창신 최대 생산 공장으로 거듭났다. VJ의 성장은 단순한 규모의 확장이 아니다. 생산력 향상을 위해 전 공정을 끊임없이 분석해 자동화가 가능한 부분을 찾아 기술과 아이디어를 더하고, 사소한 품질 이슈조차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세분화하여 촘촘한 트래킹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혁신을 멈추지 않았다. 최고를 향한 책임을 다하며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VJ. 그 치열한 현장에서 그들이 말하는 '차원이 다른 성장'의 비결을 직접 들었다.

개발과 생산을 잇는 힘

제일 먼저, 가장 많이, 누구보다 깊이

“단 하나의 결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집념
수백 장의 기록으로 증명”



CQM | 원선정 팀장

Q CQM은 어떤 일을 하나

CQM(Category Quality Management)팀에서 6년째 생산 초기 모델들의 품질 안정화를 맡고 있다. 개발 단계에서 소량의 샘플을 만드는 것과 달리, 생산은 초 단위로 신발을 만들어야 한다. 날씨나 작업자의 숙련도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도 품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생산 전, 전체 사이즈 테스트 단계에서 직접 공정을 점검한다. 수백 장의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고, 유관 부서와 실시간으로 공유 및 트래킹하며 잠재적 이슈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내 역할이다. 개발과 생산 사이의 간극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견해, 어떤 문제도 생산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CQM의 핵심이다.



Q 17년 만에 돌아온 VJ, 달라진 점이 있다면

베트남어 전공자로서 '꼭 베트남에서 일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2000년 VJ Lean팀에 배정받았다. 처음에는 현장에 가는 것조차 두렵고 모든 것이 힘들었는데, 17년 만에 다시 찾은 VJ는 마치 고향에 온 것처럼 푸근하고 편안했다. 다양한 부서를 경험하며 쌓은 노하우 덕분에, 현장을 보는 시야와 일에 대한 자신감도 크게 달라졌다. 이제는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이 이끌어 변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Q 고객사 전략 변화에 따라 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최근 고객사의 전략이 신규 모델 개발보다 디자인 다양성 확대에 초점을 맞추면서, 모델의 작은 변경에도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 CQM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모든 모델은 런칭 이후 컬러나 로고 디자인이 변경되곤 하는데, 변화의 폭이 작으면 공식 테스트인 '시화'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 작업자들과 함께 변경된 공정을 테스트하고 완제품의 품질부터 잠재적 이슈까지 꼼꼼히 점검하며 기록하고 문서화한다. '제일 먼저, 가장 많이, 누구보다 깊이 파고든다'는 개발과 생산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내 신념이자, CQM팀이 지키는 원칙이다. 익숙한 공정이라고 안일하게 넘기지 않고, 작은 차이도 놓치지 않기 위해 주도적으로 확인하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추적한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팀원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있게 대응하며 안정적인 생산을 이어가게 한다.

Q 주재원 생활의 원동력

주재원 생활을 굳건히 이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가족'이다. 한국 학교생활에 지쳐 있던 아들을 설득해 베트남으로 데려왔고, 낯선 환경과 언어, 수업의 어려움 속에서 함께 울며 버텼다. 하지만 아들은 점차 스스로 길을 찾아갔고 오는 9월, 오리건 대학에 입학해 비즈니스를 전공하며 꿈을 키워갈 예정이다. 그 여정은 단지 아들만의 성장이 아니었다. 그 모든 과정을 함께 겪으며 나 역시 단단해지고 깊어졌다. 힘든 순간마다 떠오르는 가족의 존재는 내가 이 삶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이자 원동력이다.



호치민 ABC 국제학교에서 성적 우수상을 수상한 원팀장의 아들(Jihoon)



“방향을 제시하는 건 나지만,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건
팀원들 덕분이다”

40년 전통 Jordan, 볼보를 넘어 포르쉐를 만든다

Since 1985

“조던 생산 최초 폴딩 기계,
까다롭던 조던 담당자들을 홀리다”



PE | 최규범 님

Q VJ 주재원으로 오게 된 계기

2017년, 입사 3년 차에 PE로 주재원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해외 근무가 로테이션 추세였지만 아직 내 차례는 아니었다. 하지만 우연히 기회가 주어졌고 ‘언젠가 해야 한다면 지금 해보자’는 마음으로 도전했다. 거의 백지상태였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모든 것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며 차근차근 배울 수 있었다. 8년간의 주재원 경험을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기에, 그때의 선택이 지금 더 만족스럽다.

Q VJ PE는 어떤 일을 하나

본사(HQ) PE가 모델 초기 샘플 개발과 품질 향상에 집중한다면, VJ의 PE는 전체 사이즈의 품질 관리와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을 위한 ‘개선’ 작업에 주력한다. 예를 들어 신발에 여러 겹의 레이어를 쌓을 땐, 부품의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는 ‘팔레트’라는 보조 도구가 필요하다. 샘플 단계에서는 전 사이즈에 적용될 기준 위치를 잡기 위해 고정된 핀을 사용하는데, 간격 조절이 불가능해 사이즈별로 따로 제작해야 한다. 하지만 VJ에서는 핀 간격 조절이 가능한 팔레트를 자체 개발했고 그 결과 제작 비용도 줄이고 생산 효율도 높일 수 있었다. 이처럼 생산 현장의 PE에게 중요한 역량 중 하나는 기존 방식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이다. 고정관념을 의심하고, 익숙한 방식에 질문을 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개선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Q 조던 신발은 품질 관리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고, 부담은 없나

VJ의 조던 생산이 처음 시작된, 2019년부터 지금까지 패턴을 맡고 있다. 조던은 이미 여러 공장에서 40여 년간 동일한 모델을 생산해왔기에 매우 엄격한 품질 기준을 가지고 있다. 첫 고객사 미팅에서 들었던 “지금까지 신발이 볼보였다면, 조던은 포르쉐다”라는 말이 너무 강렬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그 한 마디가 주는 긴장감과 책임감은 지금도 생생하다. 조던은 어퍼 가죽 두께가 0.1~2mm만 달라도 이슈가 될 정도로 ‘완벽함’을 기준으로 하기에,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다. 더 높은 품질 일관성을 위해 다른 공장을 벤치마킹하고 정보를 추적하며 개선점을 찾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조던 오더가 꾸준히 이어지고 품질과 생산성 면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때면 큰 보람을 느끼지만, 그만큼 책임과 부담도 크다. 지난 6년을 돌아보면 조던은 내게 ‘애증’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존재다.



Q 기억에 남는 순간

2020년, 코로나가 전 세계를 멈춰 세웠던 그때, 한 달 가까이 공장에서 기계 한 대와 온종일 씨름했던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조던은 디자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부품의 끝을 말아 접는 ‘폴딩’ 공정이 들어가는데, 당시엔 수작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품질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폴딩 기계를 도입했고 핵심은 그 기계를 조던 맞춤형으로 정밀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이었다. 기계가 놓리는 지점과 부품 위치를 정교하게 맞추기 위해 패턴을 수정하고 고정을 도와줄 보조 도구인 치공구를 직접 제작하며 테스트를 수십 번 반복했다. 코로나로 설비 전문가의 현장 방문이 어려웠던 시기라 메일과 전화로 소통하며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 그렇게 조던 40년 역사상 최초로 폴딩 기계를 적용한 생산 라인이 만들어졌고 신생 공장이었던 VJ는 ‘조던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 아쉽게도 비용 문제로 전면 상용화되진 않았지만, 지금도 스페셜 에디션과 일부 모델엔 이 때 만든 폴딩 기계가 활용되고 있다. 이 한 달의 시간. 자동화를 위한 치열한 고민과 몰입이 지금의 나를 만든 가장 밀도 높은 순간이었다.



조던 역사상 첫 폴딩 기계

VJ 성장의 30년 함께 자랐다

“품질관리의 핵심은 올바른 마인드 셋”



QA | 오안(Dỗ Thị Hoàng Oanh) 매니저

Q 어떤 업무를 담당하나

Quality팀에서 VJ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의 품질을 점검하고, 전반적인 불량률을 관리하고 있다. 불량률이 높은 라인이나 모델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명확한 품질 기준을 세운 뒤 반복적인 작업자 교육을 통해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Q 30년 전 한국으로 6개월 연수를 왔다고

한국 회사에서 일한다는 호기심과 글로벌 브랜드 신발을 만든다는 기대감으로 VJ에 입사했다. 당시 23살이었고, 입사 직후 6개월 동안 한국에서 연수를 받게 됐다. 청소부터 재봉, 본딩까지 모든 제조 공정을 직접 익혔다. 처음엔 모두가 너무 열심히 일해 따라가기 버거웠고, 솔직히 분위기가 무섭기도 했다. 돌이켜보면, 그 나이에 낯선 환경에서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었을 것 같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업자 어머니들이 자식처럼 따뜻하게 해주셨고, 진심 어린 걱정과 배려 덕분에 한국 생활이 점점 익숙해졌다. 그 따뜻한 마음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연수 기간 중, 태어나 처음으로 눈을 봤던 순간도 기억에 선명하다. 베트남에선 볼 수 없었던 풍경이라 더 특별했고, 그만큼 모든 경험이 새로웠다.



Q 품질관리 30년 차다.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신발 품질은 1~2mm의 미세한 오차로도 불량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작업자마다 품질 기준이 조금씩 달랐고, 그날의 감정이나 관습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모델별로 명확한 품질 기준이 정립되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검사 방식과 기준은 훨씬 더 세분화되었지만 수백 명의 작업자가 다양한 모델을 다루는 만큼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작업자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다. 품질 관리자로서 이 인식을 바꾸고 확립하는 일이 가장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품질 기준을 항상 문서로 명확히 남기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신입부터 고연차까지 모든 작업자가 같은 눈높이를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 꾸준한 교육만이 품질에 대한 공통의 기준과 마인드셋을 만들어낸다고 믿는다.

Q 생산 30년,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부분

지역 경제에 기여했다는 점도 분명 자랑스롭다. 하지만 무엇보다 ‘직원들을 위한 진짜 복지’가 가장 깊이 와 닿는다. VJ에는 베트남 북부에서 내려와 자취하며 일하는 직원들이 많다. 잦은 홍수와 경제적 여건으로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랑의 집(Be Loved House)’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가족까지 배려한 제도라 생각한다. 또한 백내장 발병률이 높은 베트남 특성을 고려해 마련된 ‘백내장 무료 수술’도 이미 500명 이상이 혜택을 받았다. 다양한 복지 제도들이 VJ 직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모습을 마주할 때면, 지난 30년이 더욱 자랑스롭다. 내가 노력한 만큼 회사가 성장하고, 회사가 다시 직원을 위하는 이 ‘선순환’이 지금의 나를 더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만드는 것 같다.



VOMERO PLUS

8월 7일, 러닝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 VOMERO PLUS가 출시됐다. 이 모델은 단순한 제품이 아닌, VJ의 책임감과 열정으로 탄생한 기술의 집약체이다. 차원이 다른 러닝화를 완성하기까지의 치열했던 열정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VJ PCC 윤경봉 PE, 호영 TD에게 물었다.



Q

VOMERO PLUS VJ에 어떤 의미인가



"성장의 전환점 되길"

VJ와 고객사 모두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바라며 만든 창신 모두의 진심이 담긴 결과물이자 작은 패턴으로 일상에 감동을 전하고픈 내 마음도 담겼다.

패턴 엔지니어 15년 차지만 오더량이 많아 책임감이 남달랐다. 신발 끈을 빠르고 정확하게 끼우는 보조도구부터 자동화 설비 적용까지 다방면의 개선을 노력했다.



PE
윤경봉님



Vomero

TD
호영님

Le Thi Kim Huang

"끝나지 않은 도전"

100여 가지 이상의 컬러로 생산되는 규모가 큰 모델이다. 생산 전 테스트만 수백 족을 진행했다. 생산 투입까지 촉박한 시간이지만 점점 더 이슈는 다양해졌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많은 날을 울었다.

지금도 새로운 컬러가 추가되고 또 다른 이슈도 마주하고 있다. 하지만, VOMERO PLUS가 꾸준히 사랑받을 수 있도록 도전을 즐겁게 넘어서겠다.

생산 30주년

모두가 주인공인 VJ를 만들다

직원들의 활기로 가득한 VJ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진화하며
새로운 내일을 써 내려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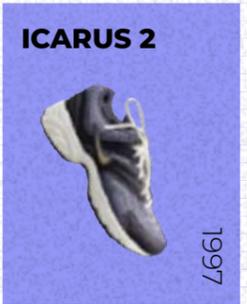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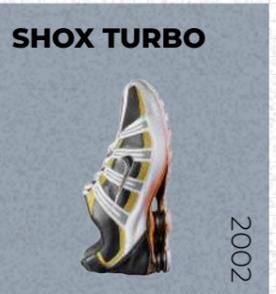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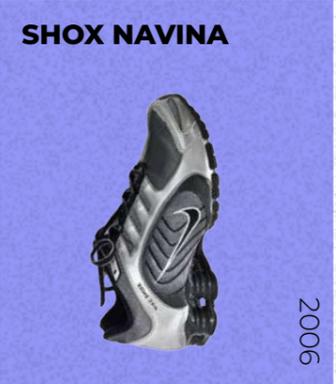
VJ파이팅!



VJ 주재원 첫 단체사진

처음 카메라 앞에 선 주재원들의 어색함도 잠시, 서로 눈을 마주하고 환하게 웃으며 격려의 말을 건네자 순식간에 현장은 따뜻한 응원과 웃음으로 가득 찼다.

VJ Model History 1995-2014

VJ ESTABLISHED  1994	ICARUS 2  1997	ACCELERATOR  1997	AIR SANJAYA  1997	AIR INHERENT  1998
AIR MAX ADVERSITY  2002	SHOX TURBO  2002	AIR MAX ADVERSITY  2003	SHOX TURBO  2003	
AIR MAX ASSAIL  2004	NITC  2005	SHOX NAVINA  2006	AIR MAX TURBULENCE 10  2006	
FREE 3.0  2008	ZOOM BOLD SISTER  2008	VJ PCC  2010	LUNAR SWEET VICTORY  2010	ZOOM RIVAL S6  2011
ZOOM RIVAL MD6  2011	ZOOM RIVAL D6  2011	SHOX TURBO 12  2012	FLYKNIT ROSHE RUN  2014	

AIR GRUDGE LEATHER

1995



VJ Model History 2015-2025





2,902

- 1997 무료 야간 학교 운영
졸업생 2,902명 양성
- 2001 장학제도 운영 \$252,200 지원



0

- 2008 노마진 슈퍼마켓 오픈
- 2010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생필품 및 성금 지원



1

- 2016 한-베 CSR 우수기업 수상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 2017 CSR 한국 중소기업부 장관상 수상
장애인고용 우수업체상 수상
- 2018 외국인투자 우수기업 선정
작업자 복지 우수 기업상 수상
- 2019 MI Score Gold 레벨 최초 달성



70k USD

- 2023 CSR 어워드 수상
베트남 중부 수재민 성금 \$70,898 전달
산업안전보건 우수업체 선정
베트남 납세 우수 기업 선정

숫자로 보는 VJ CSR



192

- 2002 사랑의 집(Be Loved House) 진행
누적 192채 전달
- 2004 소수민족 고용 및 생필품 지원

3

- 2012 3급 노동 훈장 수상
- 2014 베트남 신발 산업 발전 공헌
국무총리 특별 공로상 수상
- 2015 친환경 경제 성장 기술혁신상 수상



2

- 2020 2급 노동 훈장 수상
- 2021 코로나19 방역 기금 \$21,141 전달



500

- 2024 백내장 수술 지원
'시력 회복 500명 초과 달성' 기념식 진행
당뇨 망막증 지원 프로그램 MOU 체결

특별 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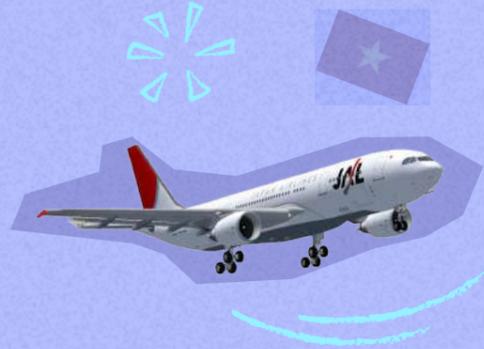
VJ 역사의 시작을 묻다

“1호 직원을 찾아서”

창신 베트남 생산 30주년을 맞아, 그 시작의 순간으로 시간을 되돌려봤다. 그 출발선에는 두 사람이 있었다. 바로 전용선 그룹장과 정재규 고문이다. 지난 6월 열린 VJ 생산 30주년 기념식에서는 '1호 직원' 타이틀을 두고 유쾌한 공방이 벌어졌다. 1995년 6월 4일, 베트남에 처음 도착했을 때 누가 먼저 비행기에서 내렸는지, 입국 심사를 누가 먼저 마쳤는지를 두고서다. 특별 코너를 위해 Legal팀에 법률 자문까지 의뢰했지만, 이 논쟁은 법으로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사실, 모두가 안다. 중요한 건 순서가 아니라 함께한 시간을 꺼내보는 추억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1호 직원'은 VJ의 첫 발자취와 함께하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한 번 해보자'라는 용기를 보여준 개척 정신의 상징이다. 아무것도 없던 황무지에서 지금의 VJ를 일군 시간들은 말보다 행동이 앞섰으며, 책임감 하나로 버텨낸 여정이었다. 불확실한 순간들을 견뎌내며 공장을 세우고 사람을 키워냈기에 오늘의 VJ가 존재할 수 있었다.

이번 특별 기획은 지금의 VJ를 만든 선배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하는 마음을 담았다. 선배들이 버텨낸 세월 위에 쌓인 30년을 기억하며, 그 속에서 일궈낸 가치를 다시 새기고자 한다.



VJ 전용선 그룹장

"항상 창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언제나 응원하겠다. 다음 30년도 잘 부탁한다."

Q VJ에 합류하게 된 계기와 역할

준비 파트의 첫 관리자였다. 당시 VJ는 지금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열악했다. 한국의 60~70년대와 비슷했고, 파견을 자원하는 사람도 드물었다. 처음엔 단지 돈을 벌자는 마음으로 왔는데, 어느새 30년이 지났다.

Q '1호 직원' 타이틀 공방에 대한 생각

(웃음) 누가 먼저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정재규 고문은 나보다 입사도 빠르고 선배이자 사수였지만, 지금은 내가 이 자리에 남아 VJ를 지키고 있다.

Q VJ가 3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한국 직원과 베트남 직원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온 덕분이다. 주재원들은 오랜 제조 경험과 기술력으로 품질 수준을 높였고, 현지 직원들은 성실하고 근면한 태도로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탰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서 아무것도 없던 농지에 공장을 세울 수 있었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Q VJ를 비롯한 창신인들에게 한마디

지난 6월, VJ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을 때, 30년이라는 시간이 한 편의 영화처럼 스쳐갔다. 그 장면들 속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이 벅차고 감사했다. 곧 1세대로서의 내 역할은 마무리되겠지만, 이제는 후배들이 그 다음을 잘 이끌어 가리라 믿는다.

법적 관점은 항상 공정해야 하므로
VJ 역사를 시작하려는 목적으로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오셨다는 점에서
두 분 모두가 1호 직원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선배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VJ가 있다는 것

Trend Catcher

[News Clipping | Vol.77]

고객사 및 신발 산업 트렌드와 뉴스 소식을 알아봅니다

As of July 2025

작성 | 경영기획팀

*타이틀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NIKE

NIKE, 회계연도 4분기 실적 발표... "러닝 부문 매출 증가"

- 2025 회계연도 4분기(3~5월) 매출 111억 달러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 상회
- 주가는 4월 대비 40% 가까이 상승, 러닝 부문 매출은 한 자릿수 증가율 기록
- 2월 출시된 'VOMERO 18'의 흥행, 직접 판매(DTC) 비중 줄이고 디지털 유통 채널을 확대한 것이 주요
- CEO 엘리엇 힐(Elliott Hill) "기존의 트렌디한 모델 재탕, 한정판 출시에 집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운동화 개발에 주력할 것"

한국경제

체벳·키피에곤, 세계 신기록 경신... '14분 벽' 깼다

- 베아트리스 체벳(Beatrice Chebet),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열린 다이아몬드리그 & 프리폰테인 클래식에서 여자 5,000m 세계 신기록 달성
- 13분 58초 06 기록, 종목 사상 최초로 '마의 14분의 벽' 돌파
- 페이스 키피에곤(Faith Kipyegon)은 같은 날 1,500m를 3분 48초 68에 주파하며 신기록 경신
- 이는 지난 6월 NIKE가 개최한 'Breaking 4'에서 1마일, 4분 06초 42를 기록하며 비공식 세계 신기록을 달성한 데 이어 두 번째 쾌거



Sangria



Air Zoom Victory 2

조선일보

경영사 / 산업

HOKA·ON, 2030 소비층 이탈로 성장세 주춤

- HOKA를 보유한 기업, 데커스아웃도어 7월 주가 105달러 기록. 지난해 최고가인 223달러 대비 절반 가까이 하락
- 성장률은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시장 기대치 하회
- ON을 보유한 온홀딩스의 주가 또한 최근 1년 새 최고가를 경신하지 못하는 추세
- 직접 판매(DTC) 방식 구매 감소와 유행 변화에 따른 2030세대 이탈이 부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한국경제

PUMA, 올 라운드 러닝화 '벨로시티 나이트로 4' 출시

- 7월 17일 프랜차이즈 러닝화 '벨로시티' 시리즈의 최신작 '벨로시티 나이트로 4' 출시
- 모든 러너를 위한 '올 라운드' 러닝화로 설계, 다양한 러닝 환경에서 최적의 착용감 제공
- 이전 모델보다 14g 경량화, 미드솔에 질소를 주입하는 '나이트로 폼(NITRO™ FOAM)' 기술 적용으로 가벼운 쿠셔닝과 강력한 반발력 구현



Velocity NITRO 4

동아일보

TALK²

Talk to each other. Exchange ideas. Stay connected.



본지는 창신 임직원을 대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이나 자료를 허락 없이 무단 복사, 전재하는 것을 금합니다.